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11월 25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행23장 1-11절

설교제목 : “주께서 바울곁에 서서”

기독교는 초인이나 도인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카톨릭과 같이 특별한 성자와 일반 교인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믿음의 사람만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특별한 성인들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 앞에서 사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성령의 예고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결박과 죽음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작정하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만일 어느 한 사람만이라고 작정하고 죽이려고 버르고 있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울은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영적으로 탈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공회원을 향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1절)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합니다.(2절) 유대인에게 있어 입이나 뺨을 때리는 행위는 그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한 죄를 판명하지도 않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한 것은 바울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앞서서 율법을 어기로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라고 반응합니다.(3절) **회칠한 담이여**란 표현은 유대인들이 하는 심한 욕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 전까지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탈진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해서, 무조건 평안하고, 무조건 형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미리 이런 결박과 핍박을 예고해 주셨지만, 이렇게 자신이 묶여지게 됨으로 어떻게 로마에 갈 수 있을까?란 불안감에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사도 바울이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했지만, 바울은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란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준삼아 곧바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5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바울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결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재판을 위해 모인 자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 이들이 가진 신학적 이견을 충돌시킴으로써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고 합니다.(6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신학적 이견은 부활문제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의도대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다툼이 발생합니다.(7-10절) 바울은 비록 잠시 영적 탈진으로 인한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바울은 일관되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결코 고난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추호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흔들리는 경우가 삶에 닥쳐오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죽음과 같은 상황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추호의 흔들림이나 변질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11절입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그 날 밤에 자신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홀로 버려 두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바울이 늘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밤에 주님의 말씀이나 환상을 보고 듣습니다.(행16:9, 행18:9, 행27:23)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매일 밤중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행16:25,26) 바울이 밤중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 주심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위기나 고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서야, 주님을 찾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와 성찬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흔들림없이 변질됨이 없이 참된 믿음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주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어찌 우리의 삶이 변질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곁에 서 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해 합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바울이 결박과 고난 중에 영적 지침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2)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눈 앞에서 매일을 산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여러분은 진정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십니까? 만일 그렇게 사신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유익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시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왜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지 못하는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